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韓國 教會學校 教育의 變遷과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Consideration for Transiton and A Reform Measure
of Sunday School Training in Korea

1997年8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瑞 坤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韓國 教會學校 教育의 變遷과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Consideration for Transiton and A Reform Measure
of Sunday School Training in Korea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8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瑞 坤

金瑞坤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7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次

I. 緒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內容 및 方法	2
4. 用語의 定義	4
II. 教會學校 教育의 成立背景	5
1. 教會學校 教育의 背景	5
2. 聖書上의 教會教育	6
3. 教會學校의 歷史	12
4. 先行研究 考察	20
III. 教會學校 教育의 特性	23
1. 教會學校 教育의 目的	23
2. 教會學校 教育의 原理	24
3. 教會學校 教育의 內容	26
4. 教會學校 教育의 特性	29

IV. 教會學校 教育的 變遷 過程	31
1. 教會學校 移植期(1884-1919)	31
2. 教會教育的 受難期(1920-1945)	39
3. 教會教育的 再建期(1946-1969)	43
4. 教會教育的 復興期(1970-현재)	45
V. 教會學校 教育的 改善方案 摸索	48
1. 教會學校 教育的 實態	48
2. 教會學校 教育的 問題點	49
3. 教會學校 教育的 改善方案	56
VI. 要約 結論 및 提言	62
1. 要約	62
2. 結論	63
3. 提言	64
參 考 文 獻	66
ABSTRACT	71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한국의 교회는 선교 1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세계 모든 교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둔화를 가져오는 침체기를 맞고 있다. 교회성장 연구소의 한 통계자료를 보면 교세 성장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 볼 때 불과 3% 미만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¹⁾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교회가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교회가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쳐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교회교육의 중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이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교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처음 신학문의 도입과 함께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회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교육이 행해졌으며 교회 선교와 교육이 보조를 같이하는 선교 개척사업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이는 오늘의 한국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학교는 건전한 복음전파의 교육이론, 실천원리와 현실을 도

1) 국민일보 부설 교회성장 연구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교세 성장의 연평균 증가율이 60년대에 41.2%, 70년대에 12.5%, 80년대에 4.4%,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불과 3% 미만 내지는 -1%로 나타나 있다. 동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교회 수에 있어서도 37,190교회에서 358개 교회가 줄어든 36,832 교회로 집계되고 있다.

외시하고 구태의연한 성서교습의 반복에 그친 나머지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감소현상을 가져온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성장의 토대가 된 교회학교 교육 내용을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교회학교 성서교육의 건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교회학교 교육의 변천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를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2. 研究의 目的

교회학교 교육의 변천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교회학교 교육의 성립 배경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육의 타당성과 기원을 분석연구하고,

둘째, 교회학교 교육의 특성으로서 교육의 목적과 원리, 내용 정리를 통하여 교회학교 교육의 학문적 성격을 정리해 보고,

셋째, 교회학교 교육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교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회학교 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研究의 內容 및 方法

1)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 한국 교회학교 교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학문적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역사적 변천속에서 현재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으로서 연구의 문제를 제기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방법등을 서술하였다.

II 장은 교회학교 교육의 성립배경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배경, 성서상의 교회학교 교육, 교회학교의 역사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III 장은 교회학교 교육의 특성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 원리, 내용, 특징을 살펴보았다.

IV 장은 교회학교 교육의 변천과정으로 교회학교의 이식기, 교회교육의 수난기, 재건기, 부흥기로 나누어 교육의 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V 장은 교회학교 교육의 개선방안 모색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VI 장은 요약 결론 및 제언으로 서술했다.

2) 연구의 방법

첫째, 본 연구의 방법은 한국교회 교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학문적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교회학교 교육의 실태를 연구하는 문헌연구로 하였다.

둘째, 관련문헌과 학술서적, 선행연구 논문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다년간 교회 생활을 토대로 연구주제에 합당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4. 用語의 定義

교회학교란 성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한다. 교회학교는 여전히 주일학교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일학교의 의미의 개념을 교회학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II. 教會學校 教育의 成立背景

1. 教會學校 教育의 背景

교회학교 교육은 복음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기독교의 포괄적인 교육행위이며 동시에 교회라는 신앙공동체를 현장으로 하여 특수하고도 구체성을 지니는 기독교 신앙의 한 분야로서 인격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독특한 교육기능이다.²⁾ 그러므로 교회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기구도 아니며 여유가 있을 때 할 만한 일이라든지 또한 여분의 정력을 소비하기 위하여 있는 기구도 아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완전한 교육을 베풀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인 것이다.³⁾

그러므로 교회학교 어린이 교육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며 그대로 실천하는 신자로서의 생활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교회학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를 기점으로 하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종교교육은 2,000년전 팔레스타인에서의 예수의 선교초기 이전과 초대교회의 생활 등에서 非公式적인 형태로 일찍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⁵⁾ 즉 교회학교 교육이란 유년주일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교육행위를 말하기에 앞서 교회 전체

2) 김두성, 「교회학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p.8.

3) 윤웅림, 「기독교 교육학」 (서울:도서출판 경향문화사, 1984), p.78.

4) 엄세빈, 「교사교육 지침서」 (서울: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 1985), p.16.

5) Lewis. J. She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York: MacMillan Co., 1944), p.73.

생활(신앙, 예배, 선교, 봉사)을 통하여 시행하는 성화(Sanctification)⁶⁾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교육은 이미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교육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것은 17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교회교육의 발전은 바로 주일학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오늘에 와서도 교회학교라는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여지게 되었다.⁷⁾

2. 聖書上의 教會教育

1) 구약에서의 교육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교육은 성서적 내용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성서적 근거 위에서 계획되어지고 수립되어야만 한다.

히브리 민족의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이나 집단생활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무엇이든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⁸⁾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있었다.

모세에 의하여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율법이 주어진다.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갈 3:24)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律法을 주신 주요 목적은 “가르침”에 있다.⁹⁾ 율법은 행위 규

6) 서울신학대학 편, 「선교와신학」 (서울: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77), p.40.

7)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기독교서회, 1976), p.45.

8) 김폴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p.36.

범적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성경(율법서 등)과 함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르쳐 졌다.

구약에서의 교육은 간과되기 쉬우나 그때에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거룩한 신앙이 이스라엘에 대대로 꾸준히 내려온 것은 예언자들의 설교와 병행해서 무수한 무명의 히브리인들이 충실히 교육을 계속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¹⁰⁾ 즉 신앙과 교육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시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¹¹⁾

그들의 교육은 “Shema”에서 찾을 수 있다.¹²⁾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신명기 6:4-9의 말씀이다.

이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거기서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그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가정교육이었다. Tallit라는 의복과 Zizth라고 불리는 색실 목도리를 매고 온 아이들에게 예배의 경건함을 가르쳐 주었으며,

9)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수근, 신청기 공역 (서울: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0), p.73.

10) James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60), p.13.

11) 이재정, 「교육목회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10.

12) 은준관, “교회교육의 새로운 이해”, 「한국교회 100주년과 교회발전」, 1981.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집, p.229.

Tefillin이라고 알려진 두 개의 가죽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네 구절이 적혀 있으며 이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Mezuzah라는 양피지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이 쓰여져 있어 이것을 나무틀에 넣어 문에 달아 두고 드나들 때마다 입맞추고 기도를 반복하도록 교육했다. 저녁이 되면 모닥불을 켜 놓고 아버지는 아들과 마주앉아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감격을 일러주었으며 이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였다.¹³⁾ 이 모두를 묶어서 “쉐마”라고 불렀으며 이는 히브리 민족의 신앙과 그것을 역사 속에 전승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적 매개였다. 그러므로 쉐마는 가정 종교 교육의 원형적 모형으로서 그 본질이 신앙 전수를 위한 것이었다.¹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신 것이다.¹⁵⁾

유대인들이 포로 이후에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도덕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회당(Synagogue)을 지었는데, 여기서 그들은 주로 율법 강해, 예배 및 친교의 장으로 활용이 되었으며¹⁶⁾ 점차 회당은 제사 중심이 아닌 교육의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쉐마와 호미리(Homily)라고 불리는 일종의 설교-교육은 예배의 핵을 이루었으며 유대인들은 호미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식별하였다.¹⁷⁾ 이러한 회당예배와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고 교회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이 회당에는 회당장, 핫잔(치리자, 하인, 직원 등의 뜻), 전언자, 쉐마의

13) 은준관, 「교사의 교육 신학」 (서울:종로서적, 1988), p. 74.

14) 은준관, “교사교육 시리즈” 「기초교육」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8), pp.12-13.

15) 김폴린, 전계서, p.38.

16)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66), p. 18.

17) 은준관, 상계서, p.13.

선포자 등의 직원이 있었는데¹⁸⁾ 이들이 직업적인 교사가 되어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처음부터 성서낭독과 율법해석은 안식일 집회의 중심점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회당이 교육적 기관이라는 특징을 부여했다.¹⁹⁾ 나아가서 회당의 전문교사들은 일주일간 내내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이처럼 교회학교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²⁰⁾ 유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구약성서를 살펴보면 모세오경²¹⁾의 기록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학교를 주관했던 기록이 있으며²²⁾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들을 교육한 사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경을 가르친 기록 (왕하 2:3-5, 4:38, 6:1) 등이 있다. 또한 Jo Sefus 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을 읽고 듣고 잘 배우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찍부터 기독교는 가르치는 일을 해왔으며 이것은 一般 正規學敎가 하는 것처럼 소정의 형식을 가진 학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교회학교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당시의 특징중 하나는 제사장들과 병행하여 학식이 많은 교사들이 개발된 것이다. 특히 서기관의 출현은 보다 진보된 교육으로 교육사에 영향을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신앙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18) 박용근 외, 「기독교 대백과사전」, (서울:기독교문사, 1980), p.748.

19) 박용근 외, 상계서, pp.745-746.

20) 김득용, 「주교교육학」, (서울:충현출판사, 1991), p. 49.

21) 모세오경은 구약성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함

22) 구약성경, 사무엘상 9:19, 10:5, 10.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며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는데 이 모두를 묶어 쉼이라고 불렀다. 또한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주로 제사를 중시했으나 차츰 교육의 중심으로 변모하여 새로운 교회교육이 시작 되었으며 그 주제는 부모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라는 것이었다.

2) 신약에서의 교육

신약성서에서는 교회교육의 실행이 가시화 되었고 교회교육이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교수 방법에 있어서 신약성서의 서기관과 랍비는 구약시대의 서기관들보다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들의 교육이론과 철학은 협소했다.²³⁾ 그러나 Davidson은 그러한 교육환경 가운데에서도 가치 있는 교육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들에게 토라의 교육은 첫째 비판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둘째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인간상이 정립되었고 셋째는 유대인의 결속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루살렘 성안에 약 460여개의 회당, 즉 성경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시의 유대인들 속담에 유대인을 없애려면 먼저 성경학교를 없애야 할 것이라 하였고 또 성경학교 없는 동네는 불가불 망할 동네라고 했으니 이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과 교육을 중요시 했는가를 알 수 있다.²⁴⁾

예수께서도 어린 시절 유대 회당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3) 민영진, 「성서백과대사전 제1권」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79), p.636.

24) 정찬신, 「기독교교육의 역사적고찰로 본 교회의 청소년지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p.12.

12살 때 유월절에 성전에서 여러 교사들과 토론하신 일(눅 2:41 -51)을 보아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²⁵⁾

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주로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마 4:23, 9:35, 막 1:21, 6:2, 눅 4:15, 6:6, 13:10, 요 18:20). 결국 구약시대의 미진했던 기독교 교육이 예수시대에 이르러서 더 확실한 기초를 이룬 것이다.²⁶⁾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19-20)고 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가르침과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교회교육의 근거를 제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는 종교교육은 그 방법이나 내용이 많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예수의 교훈을 영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제자들의 활동에서 잘 나타나 있다.²⁷⁾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했다. 초대교회의 초기 기본적 성격은 선포하는 교회였지 가르치는 교회는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하고 세월이 지나게 되자 교회는 교리적으로 정형화되고 윤리적으로 다듬어진 체계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신자들을 형성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끄는 일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되었고²⁸⁾ 후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가르치는 교회, 즉 교육중심 교회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시대의 교회교육은 활발하게 전개 될

25) 엄세빈, 전계서, p.22.

26) 최낙중, 「청소년 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성광문화사, 1989), p.30.

27)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6, 2:7 ; 디모데전서, 2:7.

28)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 (서울: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pp.129-130.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성경과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예수님은 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명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여 예배와 교육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3. 教會學校의 歷史

1) 최초의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기원은 18세기 영국 Gloucerter지방의 한 신문기자였던 Robert Raikes에 의해서 시작된 Sunday School에서부터 였다.

19 世紀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産業革命으로 인한 여파로 영국의 서민층의 생활형편은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 글로체스터와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공교육이 전혀없고 일반학교에는 특 권층의 자녀들만이 학교에 갈 수 있었기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책을 읽 을 수 조차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노동일에 종사하게 되었고 고용인 의 언령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六日,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강요당했다.²⁹⁾ 그러므로 무지, 악덕, 방탕, 불신앙등이 하위층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이무렵 레익스가 부친이 경영하던 “글로체스터 신문사”를 인수받게 되 자 이 실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다.³⁰⁾ 문맹퇴치 운동의 초창기는 성인교육으로 시작하여 수년간 노력 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레익스는 학습적령기에 있는 불우

29) Rober N. Meyers Change for Surivalin Christian Education (Arlington, Virginia : Christian Service press, 1970), p.1.

30) Rober N., Ibid, p.2.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뜻을 바꾸었다.³¹⁾ 그러나 이 글로체스터시의 아동들은 일요일밖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레익스는 이 문제를 검토하던 중 어느 일요일 신문사의 급사를 구하려고 나아갔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노상에 모여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그는 문맹과 범죄와 불 신앙과 싸우기 위해 소위 “새 실험 (New experiment)” 이라고 하는 교육전략을 펴 나아가기 시작했다.³²⁾

1780 년 최초의 주일학교가 개교한 장소는 Meridith 여사의 부엌에서부터였다. 그 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4명의 부인들에게 각각 1실링씩을 지불하였다. 교육과정은 3RS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읽기와 쓰기, 산수, 그리고 성서가 주요 내용이었다. 시간은 오전 10시~12시와 오후 1시~5시까지로 오후 1시간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다.³³⁾

그러나 이 주일학교 운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교회와 정부로부터 반대를 받았다. 그 하나는 교회의 권위와 기능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맹자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낮은 사회계층에 대한 불만이 생겨 교회와 당국에 도전해 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은 레익스의 학교가 파괴적이고 비천한 학교라고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의子女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러한 학교에서만 가능하였으므로 레익스가 시작한 주일학교는 급속도로 영국 각 도시에 퍼져서 일시적이거나 일반 학교에서도 시작하게³⁴⁾ 되어 수

31) Rober N., Ibid .p.3.

32) Rober N., Ibid, p.3.

33) Rober N., Ibid, p.3.

많은 불우 아동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레이크 이전에도 약 30여개의 주일학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당대에 없어져 버리고 유독 레이크의 주일학교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 데에는 새로운 교육혁명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즉 먼저 있었던 주일학교는 종교적 교리암기에 그 목적을 두고 암기, 규율, 교리교육에 중점을 두었지만 레이크의 주일학교는 삶의 교육, 성서와 직접 만나게 하는 교육, 그리고 도덕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개방 교육이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교리교육은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지만 레이크의 개방적인 종교교육은 어린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 뿐 아니라, 영국 교회의 변화까지를 동반해 온 질적인 차이로서 구분된다.³⁵⁾

레이크의 주일학교는 교회 밖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회적 문화, 교육적 발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소외된 계층들에게 3RS교육인 읽기와 쓰기, 산수 그리고 성서를 가르쳐서³⁶⁾ 어린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국의 교회까지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미국의 교회학교

미국의 개척시대의 정착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공헌도 지대하였다. 이들 기독교 종파들은 미국의 공립학교 설립에 있어서

34) Wand. J.W.C, 근세교회사, 이장식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1). p.322.

35) 은준관, 「주일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p.37.

36) 정웅섭, “한국 교회와 교육”, 「기독교 교육과 신학」 (서울:기독교교육연구소, 1993), p.12.

많은 영향을 미쳤다.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하나의 학교를 설립하여 교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그 당시 각 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주립학교의 교육은 종교와 성서와 예배에 기초를 두어 커리큘럼(curriculum)의 주요과목으로 성서를 택하였던 것이다.³⁷⁾

그러나 후대에 유럽으로부터 이민하여 온 국민들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기독교인들의 종교와 정서교육에 대한 열도 점차 식어져서 1787 년에서 1847년 사이의 학교는 완전히 세속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기본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우 아동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는 독지가들의 재정적 후원을 얻어 3RS교육과 도덕 및 신앙적 인격의 함양을 목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나갔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영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거센 반대를 받아 주일학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반대하는 교직자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악마의 대리자” 라고까지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운동이 평신도인 자원 봉사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주일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인정받게 되어 교회는 점차 교회의 문호를 개방하여 1812년 이후로는 전국에 확산되어 1824년에는 마침내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³⁸⁾

많은 평신도 전도자들이 개척 촌을 순회하며 주일학교를 개설하여 가르치고 전도지를 뿌렸다. 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성인을 향

37) Meyers., Ibid .p.2.

38) 기독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p.536.

한 전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의 주일학교 특징을 살펴보면 부흥전도운동과 성서중심의 교육으로서 평신도가 주도한 운동이며 초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종교적 신앙이 바탕이 되어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이었다.

3)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

우리 나라 주일학교의 시작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나 초기 선교활동에 있었던 최초의 주일학교의 시작에 대해서 역사적 타당성을 초기선교사들의 선교보고서나 그들의 일기 또는 선교일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이 미국에서 큰 발전을 보게 된 후 우리 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으나 이는 문화권이 같았던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전래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한국 기독교의 특성이기도 하다.

초기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은 1887년 정식으로 학교와 병원이 국왕(高宗)의 승인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³⁹⁾ 복음을 전하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의 엄격한 남녀 유별인 사회의 관습으로 인하여 주일학교의 조직도 남녀가 구분되어 시작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 여성 주일학교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주일학교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1886

39) 김폴린, 전계서, pp.74-75.

년 6월 제2회 미감리교 한국선교회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선교회 감리사인 아펜젤러 목사는 교육과 의료사업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세례교인 1명, 원입교인 1백명, 주일학교학생 12명, 매일학교(每日學校) 학생 30명과 차고 넘치는 병원 1개라고 하였다.⁴⁰⁾

1886년 선교보고서에 나타난 주일 학교의 성격은 1885년 가을부터 규칙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기도회와 성경공부반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 집회는 한국인들과 일본인, 미국인 등이 함께 모인 집회였다.

현재와 같은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887년부터 준비되어 1888년 1월 15일부터 이화학당에서 메리 스크랜톤 부인이 어린이 12명과 3명의 부인으로 여성주일학교가 먼저 시작되었다. 당시 스크랜톤 부인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81년 1월에 우리는 주일학교를 조직하였다. 물론 구성원은 다소의 종교적 교육을 받았었지만 이것이 비공식적으로는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권리를 학생들을 모으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주일학교는 12명의 소녀, 3명의 부인, 3명의 선교사 그리고 선교본부의 한 명으로 시작되었다.”⁴¹⁾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되었으나 점차 부인들에게도 성서 공부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주일학교가 조직된 지 두 달 후에는 본격적인 주말 저녁집회가 시작되었다.⁴²⁾

학생들 중심의 교육이 부인들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 주어 여성교육

40) 장종철, 「기독교 교육역사」 (서울: 감리교신학 대학교출판부, 1993), p.427.

41)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Jan. 1896. p.5.

42) 김폴린, 전계서, p.75.

이 신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새로운 삶의 탈출구가 되고 자신들을 무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임을 알았다.

(2) 남성 주일학교

한국 주일학교 시작의 또 다른 하나의 출발인 남자들의 주일학교는 1888년 3월 11일에 아펜젤러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아펜젤러는 1888년 3월 12일자 일기에 남성 주일학교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베델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⁴³⁾ 어제는 14명이 참석했다. 어제부터 영어로 말하는 주일학교를 내 집에서 시작했다.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당분간은 영어로 해야 한다.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⁴⁴⁾

여기서 한국 기독교 최초의 남성 주일학교의 시작을 알 수 있는데, 주일학교의 교재는 성경과 요리문답, 십계명, 주기도문 등이었다.

당시 배제학당에는 아직 포교의 자유가 없어 신학부가 정식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외에 “교사들을 만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진 8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⁴⁵⁾

이러한 모임이 기도회를 만들고 주일학교를 조직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주일학교가 퍼져 나아가게 된 것이다.

43) 베델교회에 참석하는 숫자란 1887년 12월 7일부터 모이기 시작한 학생 기도회를 말한다. 12월 7일 한용경의 집에서 최초의 학생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곧 세례 받은 학생들이었다. 이 세례 받은 자들의 이름은 한용경, 박중상, 유치겸, 윤준구, 박승면, 문세익 등이다.

44) 〈H.G. Appenzeller - Diary〉, Mar., 12, 1888.

45) 미 감리회 선교부 1888년도 연례보고서, p.339.

(3) 주일학교의 성격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첫 열매로 거두어질 때 주일학교가 시작되어 여성교육을 신장시키고 남존여비의 사상과 기계적인 노동력과 남아 출산의 의무만을 강요받던 이 땅의 여성들에게 새 삶의 돌파구를 제시하였으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교회였다. 그러므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준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남성들보다 먼저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생들 중심의 주일학교가 점차 체계적인 성서 공부가 이루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과 전도부인을 양성하게 되어 선교사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반면에 남성 주일학교 학생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⁴⁶⁾

기독교가 수용되던 시기에 한국사회는 곧 민족 사존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을 통한 개화의 목표와 부국강병, 자주독립의 힘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기독교 신앙 자체와 교회 존립의 의미조차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 간주될 정도로 처음부터 한국 기독교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선교초기부터 한글 성서를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은 이를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하여 문명퇴치에도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터전이요 일꾼을 양성하는 산실이며, 이 땅에 여성들에게 광명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되었다.

46) 김폴린, 전게서, p.78.

4. 先行研究 考察

교회학교 교육의 변천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나 그 중에 이재훈, 윤종권, 장병호, 신정범, 신귀철, 김광순, 왕현성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훈은⁴⁷⁾ “한국초기 장로교회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선교초기부터 사회교육과 문화를 주도하면서 문맹을 퇴치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주일학교가 점차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터는 교회 부흥의 도구로 전략해 버린 주일학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첫째, 1900년 이전은 교육과 의료선교에 주력하며 교육을 매개로 하여 교회를 설립해 나아갔고,

둘째, 1900-1911년은 Hardie박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교육운동이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셋째, 교회의 부흥과 주일학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윤종권은⁴⁸⁾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 개신교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민족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질적인 충실보다는 수적 증가에 강조점이 주어졌고 연합적 교육운동에서 교파 분열적 운동으로 변해 갔으며, 일제 말기에는 지도자들이 변절하고 공과 책도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글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

47) 이재훈, 「한국초기 장로회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48) 윤종권,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 개신교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족에게 빛을 던져 주는 희망의 민족 교육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병호는⁴⁹⁾ “초기 감리교회 교육선교 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교육적 범주 안에서 교회 선교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했던 당시의 주일학교 운동의 역사를 분석하였는데 1930년대의 주일학교 운동은 교회 교육적 사상과 방법론이 동원된 근대적 기독교교육의 한 현상이라 평가하였다.

신정범은⁵⁰⁾ “한국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민족적 사회교육이었고, 공동체적인 교육이었다는 관점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나를 교육(내용, 과정)의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색을 찾으려 하였는데 이를 시대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한일합방, 3·1운동, 만주사변 등을 분기점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리차드 니버(H. Richard Nibuhr)가 분석한 그리스도와 문화에 나타난 5가지 유형들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1889 - 1909년은 소외계층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의 출발점으로,

둘째, 1910 - 1919년은 성취와 희망의 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육으로,

셋째, 1920 - 1930년은 민족적 자의식의 개발의 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육으로,

넷째, 1931 - 1945년은 자주적인 교육적 노력과 좌절로서의 주일학교 교육으로 평가하며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 성장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그 교육적 역량에서 그 시대 상화에 부응하는 사회 변혁적 교육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신귀철⁵¹⁾, 김광순⁵²⁾, 왕현성⁵³⁾의 연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49) 장병호, 「초기 감리교회 교육선교 운동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50) 신정범, 「한국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51) 신귀철, 전게서.

선행연구들은 선교초기와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적 입장에서 교육적 특성을 교단별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해방 이후의 교육에 관하여는 알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선교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규명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은 앞서 거론한 연구내용의 첫 번째인 교회학교 교육의 성립배경을 통한 교회학교 교육의 타당성과 기원을 분석한 것으로 유대인의 교회학교 교육은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그들의 삶이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와 전통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근대화의 물결 속에 선진 문물과 함께 교회학교 교육이 전래되어, 서양의 앞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여 근대사회 발전에 공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52) 김광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교단의 교회교육에 대한 사적 고찰」(고신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53) 왕현성, 「한국초기 장로교회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III. 教會學校 教育의 特性

1. 教會學校 教育의 目的

교회학교 교육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특수하고도 구체성을 지니는 기독교교육의 한 분야이며 인격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독특한 교육기능으로서⁵⁴⁾ 이에 따른 교육목적이 설정되고 교육목적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교육 목적의 설정은 교육실천의 중심을 이루며 그것은 항상 교육의 방향, 내용, 과정,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한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⁵⁵⁾

따라서 교육목적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천하여 왔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요 불변하지만 인간에 의한 복음의 체험과 강조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므로 교회학교가 지향하여야 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눅19:10)과 온전한 일꾼을 양성하는 것(딤후3:17)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적당한 교육을 받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도록 하는

54) 은준관, "주일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과학」, 제 27집,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p.37.

55) 정웅섭, 「기독교 교육 개설」(서울: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78), p.135.

56) 장찬호,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p.7.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② 신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책무이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봉사할 것을 가르쳤다.⁵⁷⁾

③ 어린이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있다. 이것은 주안에서 자라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2. 敎會學校 敎育의 原理

교회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학이 정립되어야 하며 바른 신학을 토대로한 기독교 교육철학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경적인 원리

교육의 기본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까닭에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며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 역사관과 사회관 등의 틀을 형성해 주고 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상 체계를 분별하고 점검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

57) 최정성, 「존경받는 교사」 (서울:도서출판영문, 1994), p.50.

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3:15-16)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2) 바른 신학의 원리

신학은 하나님, 인간, 사회, 그리고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앞으로 처하게 될 인간의 운명, 그리고 지상에서의 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마련해 준다.⁵⁸⁾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동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를 둔 신학이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신학의 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전한 신학이라야 건전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3) 철학의 원리

기독교 교육철학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의 기틀을 바로잡고 바로 인식하는 열쇠가 된다.⁵⁹⁾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육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육의 원리는 하나님중심의 교육과 성경중심의 교육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진리를 원리로 삼아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며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목표로 하는 교회학교 교육철학의 원리라 할 수 있다.

58) 이종일, 「교회교육 다시생각해 봅시다」 (경기:도서출판두들비, 1995), p. 24.

59) 이종일, 상계서, p.30.

3. 教會學校 教育의 內容

1) 성경 교육

교회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성경 외에 다른 교과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⁶⁰⁾ 이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의 핵심이고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기록이다. 그 계시의 핵심은 인류의 구원에 관련된 계시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셨고 인간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관한 기록으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심판과 징계, 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는 이러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은 교회학교 교과서가 되어야 하며, 성경을 교사가 가르치기에 알맞게 구조화 하고 조직한 교재가 교사용 공과라고 하며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경이다.⁶¹⁾

이러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공과는 성경적인 원리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과 관련된 것들이 적용되어 구성되어 있다. 성경의 각 주제에 따른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의 원칙으로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어서 성경 전체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과가 성경 66권을 다 수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과는 공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위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로 성경의 본문을 완

60) 한치호, 「공과교수법」(서울:늘빛출판사, 1996), p. 21.

61) 한치호, 상계서, p.43.

전히 읽는 일 없이 공과에만 의존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있다.⁶²⁾

J. M. Frost라는 교육신학자는 “교회학교의 교육에 대한 사역은 3중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여 교육의 핵심을 성경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 지킬 때 가능하다.⁶³⁾ 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으며, 교회학교 교육은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교육에 있어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서 교회의 기원과 본질, 생활과 사명에 대해 알려 주며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책이다.

2) 공 과

어린이들이 배워야 하는 성경학습의 내용을 공과라고 한다. 물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도 공과이다.

기독교의 깊고 오묘한 진리, 기독교의 방대한 교리를 한 번에 가르치고 또한 한순간에 배울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계획적인 교육(목적의식적인 교육) 즉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빌어서 교육하고자 짜 놓은 것이 공과이다. 그러므로 공과교육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교회학교 학생에게 가르치게 된다.⁶⁴⁾ 한 마디로 말해서 공과는 성경을 학습하는 교육과정(curriculum)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이 일정한 기간에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계획 아래서 학습에 필요한 필수 내용만을 골라서 배열한 작업에 의하여 공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62) 한치호, 전게서, p.20.

63) 교사의 벗 편집부 편, 「교회학교 교사지침서」(서울: 서울서적, 1987), p.90.

64) 한치호, 전게서, p.19.

이러한 공과는 성경 학습의 현장이 되는 교회학교의 구조를 고려하여 3년을 한 주기로 성경의 내용들을 구분 배치하였다. 즉 3년을 학습하면 성경 전체를 한 번 학습할 수 있다는 것으로⁶⁵⁾ 교회학교 교육의 출발이자 그 전부를 의미하는 실천 계획이다. 공과학습을 떠난 교회학교 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공과가 소홀이 취급되는데서 교회학교 교육이 바로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에 공과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⁶⁾

그러므로 공과를 가르칠 때에는 말씀의 내용만 강조되어서도 안되며 삶 그 자체만이 강조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말씀과 삶이 함께 가르쳐져야 한다.

3) 특별 활동

교회학교 교육의 학습원리 중에 행함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없으며 훈련을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때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⁶⁷⁾ 즉 교회학교 학생들을 성경이 말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선 특별활동⁶⁸⁾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참된 제자로 성숙해지도록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회학교 교육의 내용은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서 교회의 기원과 본질 생활과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과 이 성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공과와 이론적인 내용만으로는 모든

65) 상계서, p.19.

66) 상계서, p.20.

67) 교사의 벗 편집부 편, 전계서, p.91.

68)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별 활동은 계절학교를 통한 성경학교와 어린이 부흥회, 어린이 제자훈련, 기타 현장교육등

것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특별 활동을 착실히 수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敎會學校 敎育의 特性

교회학교는 미래 교회의 규모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 정신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사람의 개성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결정되듯이 교회마다 그 성격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시키는 관건은 오늘의 교회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⁶⁹⁾

서울을 비롯한 중요도시 교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학교를 거친 이들의 비율이 87%이다. 또한 Dr, Benson이 말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85%의 교인이 교회학교를 거친 이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들의 85%가 교회학교를 다닌 이들이며 선교사 교역자들은 95%가 역시 교회학교를 나온 이들이라고 한다.⁷⁰⁾

한국교회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직들이나 교회학교 교사 및 성가대원 등의 89%가, 그리고 교역자의 92%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내용으로 교회학교의 목적과 원리, 내용, 특성의 학문적 성격을 살펴 보았는데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그 핵심은 성경이며 이 성경을 구조화하고 조직화하여 학문

69) 엄세빈, 「교사교육 지침서」 (서울:한국어린이 교육선교회, 1985), p.26.

70) 김득용, 「기독교 교육원리」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6), pp.101-102.

적으로 체계화시킨 커리큘럼이 공과이다. 이 공과는 교회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또한 공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삶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으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교육과는 다른 교회학교만의 교육의 특징이다. 이러한 교회학교 교육이 미래 교회의 규모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 정신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IV. 教會學校 教育의 變遷 過程

1. 教會學校 移植期(1884-1919)

1) 초기 선교활동과 교육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은 순수한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의 실정에 따라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복음의 터를 닦는 것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러한 선교의식을 갖고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선교 방법으로는 심령상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치료에 힘써야 함이 선교의 한 방편이었고 무지를 계몽하여 새로운 세계를 밝혀 줌이 선교의 첩경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선교 초기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포교금지정책을 둔화시키기 위하여도 효과적이었다.⁷¹⁾

한국에서 정식으로 선교 사업을 개시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이다. 이 두 선교회는 거의 때를 같이하여 또한 장소를 나란히 하여 한국 안에서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의 한국교회를 창설하는데 위대한 초석을 놓았다.

1884년 말에 미국 감리교회의 H.G. Appenzeller, M.F. Scranton 미국 장로교회의 H.G. Underwood가 한국선교의 명을 받아 언더우드는 1885년 1월에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은 2월에 각각 일본에 도착하여 R.S. Maclay 목사의 집에 머물면서 한국에 입국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3월 5일 매클레이 목사 집에서 제1회 선교사회를 개최하고 선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했는데 당시 한국인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이수정, 박영효

71)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47.

등을 만나 한국에 대한 사정을 물었는데 이 때 박영효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朝鮮)에서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교육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래 종교는 지금 기운이 진 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환히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과 사업인들의 일군(一群)은 우리 나라 어느 모퉁이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교육과 기독교화를 서둘러야만 합니다.”⁷²⁾

이처럼 개화파인 박영효는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서구문화를 통하여 강성해진 일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에 기독교와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한국 개화에 가장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1885년은 한국개신교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해이다.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는 3월 31일 일본 나가사키항을 떠나 4월 2일 부산에 정박했다가 4월 5일(부활절 주일) 오후 제물포에 복음의 투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직후 미국 공사 Lucius H. Foote에게 이런 글을 보냈었다.

“우리는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어학을 연구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한국어 연구생으로서 또는 교육 사업가로서 미국의 국기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선교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을 시작함이 어떻습니까?”⁷³⁾ 기독교는 이렇게 처음 교육과 함께 들어와 선교

72) F.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pp.54-55.

金玉均도 1886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에서 기독교의 수용을 건의하고 있었다. 閔泰瑗, “金玉均傳記”, 서울: 乙酉文化社, 1974, P. 125.

7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p.234.

사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병행하여 무교육 상태나 다름없는 한국 사회에 신학문을 전파하게 되었으며, 정규 학교교육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은 아펜셀러가 1885년 8월 3일 배제학당을 세움으로서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1887년 6월 8일, 高宗이 친히 배재(培材)란 이름을 지어 주었고, 당대의 명필 정학교(丁學喬)로 하여금, 학교 간판을 쓰게 하고, 외무아문의 김윤식(金允植)으로 하여금 사액(賜額), 간판을 하사했던 것이다. 한편 스크랜톤은 1886년 5월 30일 여자교육을 위하여 정동에 여학당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교육기구의 설립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스크랜톤 부인은 한 명의 여학생, 그리고 고관의 첩을 얹혀 놓고 교육한 일, 그것은 다 최초의 여성 교육이 경과해야 했던 시련의 한 상징 같은 것이었다.”⁷⁴⁾

그리고 이화학당은 스크랜톤 의사 사택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형편으로 서양인에 대한 공포심과 신교육에 대한 몰이해, 여성교육의 무관심, 여성의 내외법 등으로 상류계급의 자녀를 얻기 어려웠다.

그리고 가난한 집 여자아이들은 종이나 첩으로 팔아 버리기 때문에 더욱 학생을 얻기가 어려웠으며 아무도 그에게 딸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서양 도깨비라고까지 불렀지만, 스크랜톤 부인의 끈기 있는 노력과 신앙의 승리로 인하여 어느 날 밤에 하인을 데리고 찾아온 부인을 대상으로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⁷⁵⁾ 그 여학생은 정부관리의 첩으로서 영어를

74) 민경배, 전계서, p.235.

75) 김폴린, 전계서, p.29.

배워서 장차 왕후의 통역이 되려는 희망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부인은 3개월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제일 처음 장기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은 전 부인보다 한달 뒤에온 여자아이인데 그는 가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자기 딸을 외국인에게 맡겨 두었다가 외국으로 데려가게 되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다고 염려하자 그 여아가 결코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크랜톤 부인이 문서로서 보증하여 그 어머니의 염려를 완화시키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심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온 여학생은 집도 없는 고아(孤兒)로서 그 모친은 성문(城門) 밖에서 스크랜톤 의사가 주어 오다시피 하여 병을 치료한 여인이었다.⁷⁶⁾ 사람들은 이 여아(女兒)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였으며 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는지 주시하였다. 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들은 차차 서양 부인을 신임하게 되어 언덕 위에 있는 새 집으로 옮겨 갈 때에는 학생수가 4명으로 늘고 다음 정월에는 7명이 되었다.⁷⁷⁾ 스크랜톤 부인은 그가 설립한 학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여아(女兒)들을 우리 외국사람의 생활, 의복 및 환경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바이다.”⁷⁸⁾

76) 장종철, 전계서, p.421.

77) Scranton, M. F.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3, No. 1, pp. 3-4 장종철의 상계서 p. 421에서 재인용함.

78) Scranton M. F. 「The Gospel in All Lands」, L. G.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p. 119. 오천석의 상계서 p. 57에서 재인용함.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사업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스크랜튼 부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당시 사회의 편견을 깨뜨렸으며 외국인에 대한 악한 감정을 해소하고 유교적인 전통 속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리려고 하였다.

장로교는 교육면에 있어서 광범위한 열성을 보이지 못했다. 같은 1886년에 언더우드와 경신 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아원을 시작하긴 했으나 선교부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휴교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⁹⁾ 그 이후 1887년에 서울 새문안에 구세학당을 설립하여 약간 명으로 교육을 시작한 것이 사실상의 선교사의 교회 교육의 창시라고 볼 수 있다.⁸⁰⁾ 언더우드는 이 고아들에게 국문, 한문, 영어, 과학 및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문제를 가르쳤을뿐 아니라 봉건질서에 속한 한국인을 교육하여 서구 문물을 소개하고 시민 의식을 깨우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교육은 좁은 의미의 신앙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여 성인교육으로 발전되어 평신도 전도자의 양성과 성경 학습의 정착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교육과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대상이 된 주일학교 운동이 태동되기 시작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구국의 첩경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초기의 주일학교

한국의 주일학교 창설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문헌상

79) Go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School Work, 1892. p.297.

80) 조선 예수교 장로회사기, 上 p.80.

으로는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튼 부인에 의해서 였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과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교회가 시작될 당시인 1885년부터 였으며⁸¹⁾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누어 주로 성경공부에 치중하게 되었다.⁸²⁾

그 후 교회가 발전됨에 따라 주일학교의 수도 증가되어 1887년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평양에는 5개의 주일학교가 있었으며 주일학교용 교재도 인쇄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⁸³⁾

1900년에는 주일학교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W.A. Noble선교사 부인이 교사 양성부를 두어서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1903년 여기서 배출된 교사들이 나온 다음부터 주일학교란 명칭하에 5세초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을 모아다 가르치기 시작한것이 유년 주일학교의 시작이 되었다.⁸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유년주일학교운동은 전국교회로 확장되어 가면서 점차 그 체계가 잡혀가게 되었는데, 1911년에 노블 부인은 평양 남산현교회에 영아부를 조직하여 처음 111명의 영아를 지도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는 영아 수가 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한국인 김세리가 부장으로 실무를 보았다.⁸⁵⁾

한국의 유년주일학교는 처음에는 장년성경반에 합반되어 성경을 배우는데 그쳤지만 1905년 6월 장로교, 감리교 연합 회의가 감리교의 벙커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그 동안 각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시작되었던 주일학교는 1905년 9월 15일에, “선교연합공의회” 안에 주일

81) 광안련, 「한국교회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p.166.

82) 송낙원, 「기독교회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0), p.536.

83) 광안련, 상계서, p.166.

84) 정달빈, 「주일학교 지도법」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57), p.20.

85) 이만열, 전계서, p.253.

학교 위원회가 선교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⁸⁶⁾ 이 때에 “주일학교 공과 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일공과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선교사 중심의 위원회로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간의 침묵 모임으로서 통일공과 편찬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1907년에는 연동교회를 위시하여 평양의 장대현교회와, 남산현교회, 선천 북교회, 전주 서문교회에서 “소아회”(小我會)를 만들고 별도로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⁸⁷⁾ 그리고 교회가 없는 농촌에서도 전도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설립해 나아갔으며 노래와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색다른 공과를 채용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하여 1910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용으로 통일공과인 주일학교 공부를 편집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통일공과를 미국에서 사용한 것보다 한 해 늦게 편찬 사용한 것이다. 그것은 아직 우리 손으로 교과과정을 짜고 우리 독자적 공과를 편찬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⁸⁸⁾

1911년에는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특파원으로 내한한 F. H. Brown과 협의하여 ‘조선주일학교위원회’가 조직되어 세계기구와 연계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는 세계주일학교 연합회의 원조로(2000불) 세계주일학교 통일공과를 직접 출판하였다.⁸⁹⁾

또한 1913년에는 세계주일학교협회 실행총무인 H. J. Heinz가 내한하여 전국 주일학교를 시찰한 후 한국주일학교 진흥을 위한 5개조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했을 때에 무려 1만 4천여 명이나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어 한국주일학교의

86) 엄요섭, 전계서, p.8.

87) 김광수, 「한국 기독교 성장사」 (서울:기독교문사, 1979), p.216.

88) 정웅섭, 전계서, p.69.

89) 장종철, “기독교사상” 「교회교육 사업의 연대적책임」 (서울:대한기독교 서회, 1993), p.40.

위세를 높였다.⁹⁰⁾

1915년부터는 확장 주일학교가 개설되었는데 유년주일학교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전도의 제 일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회의 청년들은 솔선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그곳에 주일학교를 개설하고 뒤이어 교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일 서울 송동교회와 YMCA 강당에서 제1회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참가자는 각 주일학교마다 대표자 5명씩, 총인원 1천명을 넘었는데 이 대회 강사로 초빙된 J. V. Thompson 박사는 장·감 연합 주일학교 강습회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강습회를 열고 주일학교 교육전반에 걸친 강의를 통해 한국 주일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⁹¹⁾

이 시기에 주일학교 위원회는 주일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주일학교의 직제와 학습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 통일하였다.⁹²⁾

한편 1919년말에는 주일학교의 수가 1만 개교를 넘었으며⁹³⁾ 계단공과까지 출판했으나 체제와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여 통일 공과만을 사용하였다.

초기 한국 교회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장년 중심의 교육”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장년을 중심한 교회의 삶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교육면에도 그대로 드러났다.⁹⁴⁾ 유년을 위한 주일학교는 장년 성경반에 합반되어 성경을 배우게 한 보잘것없는 사정이었

90)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기독교문사, 1971), p.136.

91) 김양선, 전계서, p.137.

92) 당시의 직제는 교장, 교감, 서기, 회계, 반사였고, 분반은 소아반(1-13세), 유아반(14-20)이었다.

93) Hong, H. S. et al., Korea Struggles for Christ, C. L. S., 1966, p.81.

94) 정웅섭,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방법」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p.62.

다.⁹⁵⁾ 그리고 장년 교인교육은 주일학교 이전의 이른바 “사랑방 교육”을 통해 행해졌는데,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⁹⁶⁾

장년교육은 교회가 확장되고 교인수가 증가하면서 사경회와 장년주일학교의 형태로 발전했다. 1903년에서 1907년 사이에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회는 성경을 연구케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것은 나아가서 기독교 운동의 조직적인 기틀을 마련케 하여 장년주일학교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시간 한 시간 전에 모여 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해서 공부를 하는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그리고 교인들의 전도열과 함께 성경공부열은 한국교회 전체의 체온을 뜨겁게 하여⁹⁷⁾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룩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초기 교회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은 성경공부 운동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는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품으로 이끌어 들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했지만, 교육적 의미에서보다는 전도와 교회확장의 수단으로 삼아졌다.

그러나 주일학교 창설 직후부터 주일학교 연합기구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세계와 호흡을 함께 하는 연합운동으로 이어졌다.

2. 教會教育의 受難期(1920-1945)

3·1운동 이후, 한국 주일학교 운동은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활발해진 언론·문화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일어난 사회계몽운

95) 김광수, 전계서, p.136.

96) 정웅섭, 전계서, p.63.

97) 엄요섭, 「한국기독교교육사 소고」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59), p.9.

동과 교육열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 주일학교운동은 성장을 하였으나, 교회교육은 수적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진행되던 한국교회의 자주적 자립 노력이 주일학교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⁹⁸⁾

3·1운동 이후 주일학교는 크게 발전되어 1921년의 통계에 따르면 주일학교 3천 899개교, 학생수 22만 3천명을 헤아리고 있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다. 당시 기독교신의 한 기사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금일, 조선 기독교회의 대 발전의 주요 원인은 주일학교에 있다. 주일학교는 교회 기관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주일학교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주일학교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제2세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여 이 땅위에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⁹⁾

라고 말하여 주일학교의 중대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국백성들을 개조하려는 것이었다. 1920년에는 방위량목사의 지도하에 주일학교 촉진 운동이 일어나 이 해에 주일학교의 수가 1만개에서 1만 4천 개교로 증가되고 주일학교 운영에 대해서 1천점¹⁰⁰⁾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여 전국의 주일학교가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¹⁰¹⁾

청장년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교회는 3·1운동 이후 비로소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그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여 기독교교육에 힘을 기울

98) 이만열, 전계서, p.255.

99) 기독교신보, 1924. 3. 12. 사설. 신흥우 박사의 글

100) 1,000점 표준이라는 새 방법을 채택하여 전국 주일학교에 보급했다.

101) 광안련, 전계서, p.169.

인 결과 유년 주일학교뿐 아니라 하기 아동성경학교, 아동성경구락부 등 다양한 아동 종교교육이 발전되었다.¹⁰²⁾

한편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주일학교 대회는(1920년 10월 5일-14일) 한국에서는 공식 대표단을 파송하지 못했으며 다만 개인자격으로 방위랑목사, 허대전목사가 참석하게 되었고, 이 대회를 전후하여 세계 주일학교 대회에서는 7회에 걸쳐 3년간 계속 세계적인 주일학교 지도자를 한국에 파송하여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각처에서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21년에는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거국적인 대회로 개최할 만큼 주일학교는 발전해 갔다.¹⁰³⁾

1922년 11월 조선주일학교 기구가 개편되어 조선주일학교연합회로 새 출발하여 연합적 주일학교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한국 주일학교의 기틀을 놓았다.¹⁰⁴⁾ 연합회에서는 주로 주일학교 교육의 교재 발간에 주력하였는데, 만국통일주일공과를 주일학교 교재로 도입, 보급하는 한편, 1927년부터는 부별 계단공과도 발행하였다.

그후 3회의 전국적인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제1회 전국대회는 1921년 11월에 서울에서 열었고, 제2회는 1925년 10월에 역시 서울에서, 제3회 대회는 1929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해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주일학교가 한국인을 중심으로 토착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국제교류도 빈번하여 세계주일학교 운동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민족 개조와 교회 확장을 목표로 주일학교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처음 총무와 실무진이 주로 장로교 지도

102) 정웅섭, 전게서, p.72.

103) 엄요섭, 전게서, pp.19-23.

104) 당시 초대 회장은 오천경, 서기에 변성옥, 총무는 허대전이었다.

자들이었기 때문에 연합회의 사업과 장로회 총회 교육부의 업무가 혼동이 되는 인상을 면치못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감리교 연회(年會)는 1928년에 따로 감리회 종교교육협회를 조직하였으며 다시 이것을 1930년에 총리원 교육국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교회교육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장로교 총회도 1934년 독자적으로 교육부를 신설하고 교파위주의 교육¹⁰⁵⁾을 하기에 이르렀다.¹⁰⁶⁾

그러나 30년대 이후 일제의 극심한 압제는 민족의 독립운동적 차원에서 모든 활동을 둔화시켰으며 주일학교 운동도 그러한 여파를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일학교 연합회도 1938년 6월 21일 해산 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주일학교 운동은 어린이 심리학과 어린이 놀이 방법론에 강조를 두고 있는 주일학교 운동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¹⁰⁷⁾

당시 사용했던 공과들이 대부분 미국의 것을 번안한 것이었고 주제와 본문만을 받아 한국 지도자들에 의해 집필된 것들마저도 당시 교회가 직면해 있던 문제들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¹⁰⁸⁾ 오히려 교재 속에서 이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회피해 버린 인상마저 있다.¹⁰⁹⁾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일본은 한국민을 일제에 완전히 동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한국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교회마다 황국신민화라는 교육목표에 순응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1943년 장년부 교재에 신사참배

105) 각 교파 단위의 교육부가 강화된 원인 중에는 1932년부터 세계주일학교 연합회의 재정적 보조가 줄어,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활동이 약화된 것도 들 수 있다.

106) 정웅섭, 전계서, p.77.

107) 장병호, 전계서, p.29.

108) 당시 교회가 사회로부터 도전받고 있던 문제들은 민족적,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경제적 과제를 담고 있었다.

109) 문동환, 「한국교회교육사」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p.48.

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수록¹¹⁰⁾될 수밖에 없는 등 이미 기독교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¹¹¹⁾

이 시기는 주일학교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일제 말기 그 운동이 거의 정지되기 시작한 시기까지 수적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한국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 성경에 있는 내용과 지식을 단지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흥미 있게 보여 주며 요절을 주로 암기 암송케 하고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다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며, 성경대로 행하는 나라는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가 된다는 일방적 전달식의 교육이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 연합적인 차원에서 세계주일학교 운동과 호흡을 함께 하였으나, 각 교과간의 이권 때문에 연합운동은 끝나게 되고 교세확장이나 교과중심 교육에만 급급하게 되었다. 한편 교회교육은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로 인하여 기독교의 본래 정신은 쇠퇴해 졌지만 이 나라 백성에게 민족의식과 자유의 꿈을 심어 주었다.

3. 教會教育의 再建期(1946-1969)

8·15해방을 민족적인 구 속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교회의 재건과 주일학교 활성화가 다시 시도되어 어린이와 젊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억압받아왔던 교회청년들은 새 힘을 얻어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위축되었던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110) Development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Korea Struggle for Christ, 1966, p.82.

111) 이만열, 전계서, pp.258-259.

대성황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복구 의지만 있었지 그 복구를 충실하고 내용 있게 추구해 나아갈 준비에 철저하지 못하고 각 교과간의 불일치, 신사 참배를 둘러싼 신앙의 극한적 대립으로 교단은 분열되고 교회교육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8년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가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사용하면서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했다.¹¹²⁾

1950년의 민족적 분단 체제의 비극적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교회의 신앙은 비현실적이고 타계적인것, 부흥회적인 열광주의로 몰고가 교회의 교육적 본질을 더 혼란으로 몰아 넣어 교회의 교육적 기능과 사명이 마비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에는 미국감리회 아리조나주 기독교교육부 총무 하비(S. B. Harvey) 박사의 권유에 의해서 계단 공과가 시도되었으나 불행히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는 3년 주기인 부별 계단공과가 아니라 보다 많은 집필진과 재정이 요구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조건을 요하는 1년제 학급별 계단공과를 출판했기 때문이다.¹¹³⁾

1960년대에 들어서자 많은 교육학자들은 외국에서 교육받은 교육원리를 거의 그대로 한국 현장에 옮기려 할 뿐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제시하거나 교육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¹¹⁴⁾ 계속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하여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해방부터 1960년대까지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도전을

112) 황문찬, 「주일 교회학교란」 (서울:종로서적, 1985), p.63.

113) 정웅섭, 전게서, p.80.

114) 정웅섭, 전게서, p.82.

계속 받아 왔지만, 교회는 문제의식조차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상황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시대적인 문제를 교육적 과제로 도입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방 후에 진행되어 오던 교과 분열의¹¹⁵⁾ 위기 속에서 교회교육은 자파교단 위주의 교육 활동에만 급급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뜻과 힘을 모으는 일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교육의 연합사업은 가맹교단¹¹⁶⁾의 이권 확보 싸움으로 분열되어 교단의 독자적 교재출판 등, 독자적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교회교육은 자성의 소리가 들려 오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가 교회학교로서의 학문적 자기 자리를 세워 나가면서 기독교교육의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능성으로 도약하게 되었다.¹¹⁷⁾

해방 후의 한국교회는 명확한 선교방향을 수립하지 못하여 선교를 반영한 교육이론의 정립과 교육의 꿈이 없이 옛것을 단순히 답습한 교육이 되어 세속성의 도전에 대해서 복음으로 대응치 못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하여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과 타협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교육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으나 60년대 후반부터 교회교육은 자체 반성의 풍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교인 교육적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4. 教會教育의 復興期(1970-현재)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자 교

115) 「도전받는 보수신학」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1), p.76.

당시의 신학 논쟁으로 기장, 고려, 통합의 교과 분열이 있었다.

116) 1947년 재건과 함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가맹했고, 1959년에 기독교장로회가 가맹했으며, 1962년에 성결교가 탈퇴했다가 다시 1971년에 가입했다.

117) 황문찬, 전게서, p.63.

회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국가 경제의 부흥과 대형화에 따라 교회도 대형과, 기업화되어 교회가 목회가 아니라 경영하는 형태로 변해 버렸다. 이 기간동안에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흥하여 교인 수는 전체 국민의 20%까지 육박하였고¹¹⁸⁾ 교회의 건물과 기구는 세계적이 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장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부흥에 치우친 한국교회는 화려했던 주일 교회학교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비극적 통보와 자주 접해야만 했다. 주일 교회학교의 죽음을 들고 나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교회학교의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적어도 교회학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과학 기술 혁명이라는 원초적 문화 혁명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무관심, 교육행정의 무기력성, 교육기술의 후진성 등을 구체적인 이유들로 나열하고 나섰다.¹¹⁹⁾ 더욱 충격적인 보도는 미국 교회의 경우 교사로서 자원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교사의 수는 충족되고 있지만, 전문 훈련은 거의 외면되어 왔음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향하여 물어야 할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은 “교회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John H. Westerhoff 처럼 “교회학교의 죽음을 선언”하고¹²⁰⁾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찬양론자처럼 “교회학교는 무조건 신성한 기

118) 중앙일보, “한국종교의 현주소”, (서울:중앙일보사, 1982. 4. 20) 제 6 면.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은 1975. 4. 1에 4백만이던 신자수가 1982. 1. 1에 7백 64만명으로 증가하여 불과 7년 사이에 거의 2배의 숫적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 숫자는 총인구의 19. 93%이며 천주교를 합하면 24%이다.

119) 박문옥, 「교회갱신을위한 교회교육의 방향과방법론」(플러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p.7.

120) John H. Westerhoff III,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p.53ff.

관심”을 천명하고 절대화하여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위의 두 가지 입장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는 아직 죽음을 선언할 만큼 죽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놀라운 잠재력과 영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와 “가능성”을 가진 교회학교를 위해서 창조적 개혁적 몸부림을 과감히 시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¹²¹⁾

그러므로 교회학교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받아들여 교회학교가 교회에 예속된 부속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구조와 과정이 교사와 학생의 구조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선 신앙인들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은 앞서 거론한 연구내용의 세 번째 내용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규명하였는데, 교회학교 이식기의 선교정책은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 성경공부로 이어져 부흥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의 수난기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하여 기독교의 본래 정신은 쇠퇴했지만 백성들에게 민족의식과 자유의 꿈을 심어주었으며 재건기의 교육은 명확한 선교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교육의 시행착오를 격게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기에서는 외형적인 부흥에만 치우친 한국교회는 화려했던 주일 교회학교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는 비극적 통보를 접하게 되어 교회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21) 은준관, 전게서, p.1.

V. 教會學校 教育의 改善方案 摸索

1. 教會學校 教育의 實態

초기의 주일학교는 사경회와 더불어 전도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전문적인 교사 훈련, 교재 출판, 강습회 등은 그 당시 공교육보다 더 앞선 교육 개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은 문화혁명, 문맹퇴치, 민족운동, 그리고 평신도 운동의 주체역을 담당했다.¹²²⁾

그러나 60-70년대를 거치면서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숫적 확장에만 관심을 기울여 경쟁적으로 부흥운동에 전념하면서 성인 중심의 '대예배'만 중시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공간과 시간, 재정 등을 외면함으로써 교회학교 운동의 본래 취지는 거의 상실되고 지금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외형적인 교회성장에 맞춰 교회학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교육의 전문성에는 거의 무관심하며 공과 연구 없이 교육과정에 임하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현재 교회마다 교육전도사를 두지 않은 교회는 없다. 그러나 교육전도사들은 아직도 신학의 기초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교회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봉사자는 되어도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사실이다.¹²³⁾ 또한 교육의 비전문성은 교육현장에

122) 은준관, 「교사의 교육신학」 (서울:종로서적, 1988), p.62.

123)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솔로몬, 1993), p.295.

서 봉사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 성장은 교회학교 교육이 남긴 유산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장의 감격 속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점차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교회학교와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교회와 교회학교간의 연계성이 오랜 세월 단절되어 왔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전 교육적 체제와는 별개의 부속물로 취급되어 왔으며 단지 공존해 왔을 뿐인 것이다.

2. 教會學校 教育의 問題點

현재 교회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라 하면 유년 주일학교를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학교라는 명칭은 어린이 부서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다.¹²⁴⁾ 교회학교란 기껏해야 어린이와 청소년에 국한해 버리고 교회학교는 뜻있는 몇몇 젊은이나 평신도들의 봉사하는 일터로 분리되어 전문화된 훈련도 받지 않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미성숙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교사들은 올바른 교육정책도 없이 한 권의 공과 책으로 어린 영혼들을 상대하고 있다.

1) 교사교육의 문제점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지망하고 졸업하여 나가지만 기독교교육 내지 교회교육 전문가는 부족하다. 현재 한국교회 교육의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경험을 쌓기 원하거나 학비충당의 한 방편으로 하거나 교회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심이 있는 수습생으로 대부분 메꿔지고 있는 실정이

124) 김득용, 「현대기독교 교육운동 연구」 (서울:총신대학교, 1983), p.232.

다. 또한 교회학교는 소수의 유급 교육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인 교사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회는 엄격한 교사 선정의 기준이 없이 교사들의 신앙적 열성과 헌신적 봉사만을 강조해 교사를 모집, 선발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전통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과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인력관리 형태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력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교육을 위한 인력은 첫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성을 격려하는 신앙적 차원의 지도와 둘째, 효율적인 교사 인력의 관리는 행정적 차원의 제도에 근거하여 수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⁵⁾

일반 사회에서 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어려운 훈련과정을 거쳐서 교사로 선발된다. 이는 교사직이 전문직이라는 지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책임 있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준비의 마음도 가져다주기 위해서도 훈련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훈련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육의 이념에 대한 이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피교육자인 학생의 개성과 행동을 파악하는 방법, 교육내용의 구성원칙과 이의 적용, 시청각 교재의 활용과 교육적 효과의 향상 방안 등 교육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학교 교사는 이와 같은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혀 훈련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에 임하는 교사가 전체의 63.3%에 이르렀다는 통계는 기독교교육의 질과 과정 그리고 내용

125) 강희천, 「교회교육의 인력수급 계획」 (서울:현대와 신학, 제18집, 1994), pp. 99-100.

모두가 저질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사의 계속교육에 있어서 63.5%의 교사는 교재나 자료를 통해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전문성은 사실상 외면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¹²⁶⁾ 교사교육은 물론이고 교사모집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및 계획마저도 진부하므로 해가 바뀌면 주먹구구식으로 교사충원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성도라면 교육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은준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물론 교회학교 교사는 신앙과 영성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신앙인 이라고 해서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의식구조는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절대 다수는 현재 이렇다 할 교사 예비교육이나 교사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교사로 임명되어 일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다. 한 번 교사로 임명되면 모든 것을 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문제

현재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은 선교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예배와 한 권의 주일공과가 있을 뿐이다. 즉 교회학교 교육과정은 주일공과 라는 단일 교과가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주일공과를 요령껏 학생에게 전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장 외부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주입식이고 암기 식이

126) 정웅섭외 2인, 「한국교회학교 교육실태조사」 (서울:한국기독교연구원,1980), p. 80.

될 수밖에 없고, 또 지식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²⁷⁾

이에 대하여 은준관 교수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생명은 몇 시간을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암송했느냐, 몇 명이 모였느냐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교육행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기에 앞서 적어도 교육 방법이나 학습 심리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고 그에 준해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암기위주의 그리고 맹목적인 교육을 하게 되므로 교육은 자율성이 없고 창조성이 없는 교육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르쳐 온 한국교회 교육의 내용은 주로 예배를 통한 설교, 공과공부가 거의 전부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방적 교수를 강조한 주입식 성서지식의 전달로 단지 성경내용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 위주로 교육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 환경의 문제

현재 교회 건물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비해 교회학교 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태다. 한 예배실 안에서 몇 개의 반이 함께 공부하는 것은 예사다.¹²⁸⁾ 교사는 돌아서고 학생은 긴 의자에 앉아 교사의 강의를 듣는 일은 선교초기부터 변하지 않는 교회학교의 모습 중하나이다.

교육시간도 교사의 예배시간에 쫓겨 20분 안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앙적인 관계가 형성될리

127) 정우현 외, 전제서, p.61.

128) 전재우, “외면하는 청소년들” 국민일보 1996년 5월 28일 한국교회개혁 및 교회교육 갱신에 대한 특별기획

없다. 신앙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일반학교의 교사와 학생 사이보다 더 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교회학교 현실이다.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도 현대 흐름에 맞는 예배분위기와 학생들의 연령층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학교 예산은 가장 낮게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교사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 예배를 통한 구원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탄생 등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¹²⁹⁾

이처럼 교육의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교회학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에 관심과 함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더 성장한다는 사실은 교회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교육 행정의 문제

교회교육 행정은 교육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시설과 자료를 제공 활용케 하며,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교육 성과를 올리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즉 현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최대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이끄는 활동이다.¹³⁰⁾

교회학교의 교회교육 행정이라 하면 교회학교의 조직, 환경개선, 교육 경비 지원, 교사에 대한 격려 등을 들 수 있다. 교회학교 조직은 효율성과 인간 관계의 조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짜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교회 대부분의 조직은 나누기식 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수직적이고 하향적이다. 이것은 교회 조직이 권위주의적 구조라는 사실을

129) 노회경, “교육전문가가 없다”, 국민일보 1996년 5월 29일 한국교회개혁 및 교회교육 갱신에 대한 특별기획

130) 임세빈, 「교사교육지침서」 (서울: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1985), p.91.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거의 모든 교회 조직이 적정규모 이상으로 책임분담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환경의 시설 면에서 교회교육의 場인 교육장소는 교실 등의 부대 시설이나 미화작업, 조명도 등에서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회교육의 예산에 있어서 교육비가 교회의 총예산의 20% 선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교회 교육비의 예산은 10%선을 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¹³¹⁾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예산은 현재의 상태에서 대거 증액되어야 하고, 교사의 위로와 함께 교무관리 등 여러 행정분야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¹³²⁾ 많은 교회가 건축을 위해 교회학교 예산을 삭감하는 교회는 있어도 교회학교를 위해 건축을 늦추는 교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교육관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5) 교수매체 활용의 문제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며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과 성서에 나타난 오래 전 사실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수매체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131) 노치준, “한국교회 재정구조의 연구”, 중앙일보 1994년 6월 21일 15면에 교회예산의 구조를 밝히고 있는데 교역자의 급여 27.28%, 관리와 운영 26.03% (12.70%, 13.33%), 건축비 13.16%, 국내의 선교비 8.09% 교육비 7.41%, 예배비 4.02%, 사회봉사비 3.88%, 기타 10.12%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32) 손종국, 「청소년교육」 (서울:청소년교육선교회, 1990), p. 47.

현재 한국 교회교육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은 1983년 김두성¹³³⁾의 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서의 시청각 교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187개 교회 중 8%만이 많이 사용하고 28%가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0%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22%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회학교에서 시청각 교재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10년이 지난 1992년 김숙경¹³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329개 교회 중 21.6%가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67.2%가 필요하지만 잘 활용하지 않고, 11.2%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응답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22.4%의 교회가 적당한 자료의 부족, 20.2%가 예산의 부족을 들고 있어 교회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종류의 자료개발과 아울러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교회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TV(20.0%)였고, 다음은 VTR(19.6%), 녹음기(17.7%), 투시물환등기(15.9%)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교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쇄물이 18.0%로 1위이고 다음은 껌도(17.1%), 그림(16.2%), 사진(14.4%), 용판자료(10.6%), 비디오테이프(6.8%), 슬라이드(6.3%), 녹음테이프(5.0%), 투시물(2.7%)의 순이다.¹³⁵⁾ 즉, 제작하기 쉬운 비투사매체가 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매체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매체는 껌도가 16.8%로¹³⁶⁾ 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현실성이 왜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

133) 김두성, 전계서 p.41.

134) 김숙경, 「교회학교 교육에있어서의 교수매체 활용에 관한 연구」(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p.64.

135) 상계서, p. 57.

136) 김숙경, 전계서, p. 59.

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육은 아직도 강의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교수매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학교에 알맞는 적당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있어야 하며 또한 교회에서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매체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이루어지는 공과공부는 교수매체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고, 성경학교, 교회행사, 특별 순서활동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수매체는 필요하지만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教會學校 教育의 改善方案

한국 교회교육의 혼란은 교회의 교육구조에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 교회교육이 전(全) 교회라고 지칭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 주일학교라고 하는 현재의 교회학교 교육에 제한시켜서 주일날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교회교육의 전부인 양 협소한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로 전진하면서, 그리고 고도의 과학 기술 사회와 지식 사회로 급변하는 2천년대로 전진하면서, 기독교 복음선교의 전략의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¹³⁷⁾ 그것은 바로 교육을 통한 새로운 선교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기독교 선교의 전통적인 방법을 교육

137) 정일웅, 「교회학교교사 훈련과제와방법」 (서울:신학지남 겨울호, 1983), p.127.

을 통한 선교과제의 성취적 방향으로 수정 전환할 때만 한국교회의 성장은 올바른 궤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교육의 과제는 막중하다.¹³⁸⁾ 지금 한국교회는 참다운 복음의 교육과 질적으로 성숙된 신앙적 모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일은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성취에는 반드시 질적인 교사를 기본적으로 양성하여 교회학교의 교육적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할 때 역시 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¹³⁹⁾

1) 교사교육

교회교육 전문가는 신학생도 아니요 일반 교육학자도 아닌, 신학과 교육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교사를 양성하면서 주일학교 운동을 벌여 왔다.¹⁴⁰⁾ 이제는 한국의 교회학교 운동도 초년기를 지나 중년기에 들어섰다.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교사를 메꾸어서는 안될 것이다.¹⁴¹⁾ 교회학교 교사들이 봉사와 헌신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제한을 두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교회학교 교사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훈련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8) 정일웅, 「교회교육의 근본적 과제」 (서울:교사의 벗, 1992년 7-8월호), p.62.

139) 정일웅, 전게서, p.128.

140) 1924년에 출판된 주일학교 교사양성 공과의 과목은 성경 12시간, 심리학 12시간, 교수법 12시간, 조직법 12시간, 특별과 12시간, 인도법 12시간, 총계 72시간. 이과정을 공부한 후 시험에 합격하면 조선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을 주고 이 과정 다음에 또 72시간을 더 공부하면 만국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과 졸업장을 주었다.

141) 정우현 외, 전게서, p.64.

이 과정이 정규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교회 학교의 이념이나, 교육의 방법, 시청각 교재의 활용, 신앙적 입장에서 보는 자연의 해석 등 교회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 교사 지망생은 언제든지 이 과정을 필한 후 해당 당회가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최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성서의 구조, 교수-학습과정 등 교육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학습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모집에서부터 훈련, 임명, 계속교육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부장 역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이 있는 직분 자를 선임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훌륭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명 받은 교사는 기독교의 신앙전달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내용이란 언제나 교육목표에 준해서 구체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그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내용은 언제나 말씀과 삶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한다. 말씀의 내용만이 강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삶만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닌 말씀과 삶을 동시에 가르쳐서 말씀과 삶의 연결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교회교육 특히 교회학교에서는 주로 예배와 한

권의 주일 공과가 교육내용의 전부이다. 교사는 주일 공과의 내용을 전수해 주면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수방법은 자연히 주입식과 암기 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지식위주의 교육이 된다.

이와 같은 암기위주 그리고 맹목적인 교육 때문에 교회학교의 교육은 자율성이 없고 창조성이 없는 교육이 되어 말씀의 내용만 전달하고 삶과의 연결을 교육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는 어떤 특수한 지식의 전달이나 기능의 훈련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숨겨진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죄의 속성을 배제하면서 어린이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3) 교육 환경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독교교육의 생명은 몇 시간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암송했느냐, 몇 명이 모였느냐에 있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교육행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대희하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교육환경의 영성이란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준비 없는 장소나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한 시간을 지내고 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나 분위기가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영적 경험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바꾸어 예배를 통한 구원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대감이 생겨나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고 대예배를 위한 교회의 모습에서 탈피해 예배와 교육의 균형을 바로잡아 큰 교회학교는 반드시 큰 교회를 만들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의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교회학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에 관심과 함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예배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겠다.

4) 교육 행정

교회학교의 교육행정은 교회학교의 조직, 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 교사에 대한 격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효율성과 인간 관계의 조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짜여져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교회가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성직자 중심의 행정, 구조에서 과제수행중심의 구조로 과감히 바꾸어 이를 적정규모의 책임분담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예산에 있어서 교육비가 아직까지 10%선을 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이를 대거 증액하여 20%선을 넘게 책정하여 효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배시간에 쫓겨 20분 안에 교육을 끝내야 하는 폐단이 없어져야 하며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도 현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형태를 개발하여 사회의 흐름과 교회교육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교수매체 활용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며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과 성서에 나타난 오래 전

사실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수매체의 활용이 필요한데, 교수매체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에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 행정담당 지도자들은 교수매체의 관리, 보급, 활용, 상담, 서비스의 기능을 하는 자료실의 운영에 재정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 자료실의 설치를 위해서는 교수매체의 효과와 자료실의 기능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과 아울러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가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과정에 알맞는 교재의 제작, 교수-학습과정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매체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각 교회학교에는 OHP, 슬라이드, VTR 등과 같은 값비싼 기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에 알맞는 적당한 자료 개발 및 보급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교수매체 활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내용으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살펴 보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수적 확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성인중심의 대예배만 중시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학교란 기껏해야 어린이와 청소년에 국한해 버리고 있으며, 전문화된 훈련도 받지않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교회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참다운 복음의 교육과 질적인 성숙된 신앙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VI. 要約 結論 및 提言

본 연구는 한국 교회학교 교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학문적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역사적 변천속에서 현재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로서 이것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要約

1) 교회교육은 2000년전 예수의 선교초기 이전부터 비공식적인 형태로 시작되어 오다가, 제도적인 교회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780년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교육 형태의 주일학교 교육이었다. 그 후 미국으로 전래된 주일학교는 성서 중심의 교육으로 변모하여 1885년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전래된 주일학교는 서양의 앞선 새로운 문화와 함께 근대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

2) 교회학교 교육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교육으로서, 성경을 구조화하고 조직화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공과이다. 이 공과를 중심으로 교회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으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교육과는 다른 교회학교만의 특징이다.

3) 1885년 한국에 전래된 교회학교는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고 이것이 성경공부로 이어져 1907년

대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되어 교회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교회는 비로소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그 사명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여 기독교 교육에 힘을 기울인 결과 유년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교육이 발전되어 갔다. 그리고 8·15광복을 맞이 하였으나, 교육이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교육의 꿈이 없이 옛것을 단순히 답습하는 소극적인 교육으로 전락하여 시행착오를 격다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교회는 경이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교육의 뒷받침 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장이 둔화되어 간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것이다.

4) 교회가 침체된 원인중의 하나로는 한국교회가 외형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성인중심의 예배만을 중시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등한시한 결과이며 교육정책의 부재, 교육전문가의 부족으로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헌신된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2. 結 論

1) 교회교육은 오랜 기간동안 비공식적인 형태로 히브리인들의 가정과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 1780년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교육 형태의 주일학교 교육이 미국을 거쳐 성서 중심의 교육으로 변모되어 1885년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되어 오늘의 교회학교 교육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2) 교회학교 교육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에 기초한 복음전달의 한 교육인데 교회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공과의 핵심은 성경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경과 공과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초기(1885)의 한국교회는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되어 교회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교회 교육은 그 당시 공교육보다 앞선 교육으로서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문화혁명, 문맹퇴치, 민족운동을 선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였으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소외 계층을 외면하고 복음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

4) 교회학교가 침체된 원인으로 지적된 외형 중심의 성장 일변도를 교육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통한 교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예배와 교육의 기능을 회복여야 하겠다.

3. 提 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교회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학교에 대한 교회지도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교육은 교회의 양적 부흥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러므로

교회지도자들은 교회교육이 교회의 본질 적인 기능이라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명감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사역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할 때 비로소 교회학교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교회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총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세가 적은 교회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총회차원에서 연합적으로 협력하는 교회학교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여 교육행정과 재정의 지원, 교사교육과 교육 기자재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國 內 文 獻

- 곽 안 련,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강 희 천, 『교회교육의 인력수급 계획』, 서울: 현대와 신학, 1994.
- 김 광 수, 『한국 기독교 성장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9.
- 김 득 용, 『주교교육학』, 서울: 충현출판사, 1991.
- _____ 『기독교 교육원리』, 서울: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6.
- 김 두 성,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3.
- 김 속 경,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교수매체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3.
- 김 양 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 의 환, 『도전받는 보수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1.
- 김 폴 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기독교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기독신보, 1924. 3. 12.
- 교사의 벗 편집부, 『교회학교 교사지침서』, 서울: 서울서적, 1987.
- 민 경 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 문 동 환, 『한국교회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3.
- 민 영 진, 『성서백과 대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미국 감리회 선교부 연례보고서, 1888.
- 박 문 옥, 『교회 갱신을 위한 교회교육의 방향과 방법론』, 경기: 풀

- 러신 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4.
- 박 용 근 외, 『기독교 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0.
- 반 피 득 외,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66.
- 손 종 국, 『청소년 교육』, 서울: 청소년교육 선교회, 1990.
- 송 낙 원,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0.
- 서울신학대학 편, 『선교와 신학』, 서울: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77.
- 오 인 탁 외,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 이 재 정, 『교육목회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청구 논문, 1989.
- 이 종 일, 『교회교육 다시생각해 봅시다』, 경기: 도서출판 두들비,
1995.
- 이 만 열, 『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7.
- 양 승 현, 『어린이 디모데훈련 지도자가이드』, 서울: 파이오디온 선
교회, 1980.
- 엄 요 섭, 『한국기독교 교육사 소고』,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59.
- 장 병 호, 『초기감리교회 교육선교 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2.
- 장 종 철, 『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3.
- _____ 『기독교사상』 『교회교육 사업의 연대적책임』 서울: 대한기
독교 서회, 1993.
- 장 찬 호,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
성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5.

- 정 응 섭, 『기독교 교육 개설』,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8.
- _____ 『현대기독교 교육의 과제와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_____ 외, 『한국교회학교 교육실태 조사』,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1980.
- 정 찬 신,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고찰로 본 교회의 청소년지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4.
- 정 일 응,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 1993.
- _____ 『교회교육의 근본적 과제』, 서울: 교사의 벗(7-8월호), 1992.
- _____ 『교회학교 교사 훈련과제와 방법』, 서울: 신학지남(겨울호), 1993.
- 정 달 빈, 『주일학교 지도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7.
- 윤 용 립, 『기독교 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경향문화사, 1984.
- 염 세 빈, 『교사교육 지침서』, 서울: 어린이 교육선교회, 1985.
- 은 준 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_____ “교회교육의 새로운 이해”, 『한국교회 100주년과 교회발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집, 1981.
- _____ “교사교육 시리즈”, 『기초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_____ 『교사의 교육신학』, 서울: 종로서적, 1988.
- _____ “주일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 교육과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최 낙 중, 『청소년 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최 정 성, 『존경받는 교사』, 서울: 도서출판영문, 1994.

한 치 호, 『공과교수법』, 서울: 늘빛출판사, 1996.

황 문 찬, 『주일 교회학교란』, 서울: 종로서적, 1985.

外國文獻

Development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Korea Struggle for Christ, 1966.

F. A. McKenie. The trgaedy of korea, Reprinte d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Go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School Work, 1892.

Hong, H. S. et al., Korea Stuggles for Christ, C. L. S., 1966.

H.G. Appenzeller - Diary, Mar., 12, 1888.

John H. Westerhoff III,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Lewis. J. Sherill, The rise of Christion Education, NewYork : MacMillan Co, 1944.

M. F. Scranto,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Jan, 1896.

Rober N. Meyers Change for Surivalian Christian Education, Arlington, Virginia : Christian Service press, 1970.

Scranton, M. F.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3, No.

Scranton, M, F. "The Gospel in All Lands", L. G. Paik, The History of proestant Mission in Korea.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수근, 신청기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연구원, 1980.

G. B Harvey, 『현대기독교 교육의 동향』,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편, 1956.

James D. S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60.

Wand. J.W.C, 『근세교회사』, 이장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ABSTRACT

A Consideration for Transition and A Reform Measure of Sunday School Training in Korea

Kim, Seo - Gon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sideration of training in the Sunday school in a historical view with characteristics of scholarship and trouble point of Sunday school for institute of Korean church.

1) Sunday school training have began formless style in Hebrews family and tabernacle till 1780 year when the beginning of social training system by the Robert Lewix who residence in England. And through United States this system was transferred to Korea by the foreing missionary in 1885 with charge of Bible intensive training and develop to todays Sunday school.

2) Sunday school training was a part of evangelism transmission training which based on the Bible with centering around God and Jesus Christ and the key word of textbook which used in Sunday school are the Bible. Thus it asked completely study about Sunday

school text and the Scripture.

3)The early Korean church(in 1885) had been basical foundation by the carrying out of medical service and educational service to the outsiders and poverty people together with Gospel and great evangelism rehabilitation movement in 1907. By the acknowledgement of importance for primay education of the church, they practiced more advanced education than the public school and leading the culture innovation, give the reading ability to every citizens and put the nationalism in their heart with evangel of Christ. Otherhans, recent Korean church intend to featuring growth without function of evangelly and outward of perple who live in downstair.

4)The direction of featuring growth, as pointed out the reason of inactivity of Sunday school must conversion to education intend policy to recover of worship and educational function. By the structure of church development foundation through administration specialization.